

- 영생대도의 실천
- 영생학의 보급
- 영생문화의 창달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를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 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 특별기고

# 삼일병화 만국통합

## 三日兵火 萬國通合

격암유록의 구조적 이해를 위해 '궁궁을을'을 간단히 설명해 보고자 한다.

먼저 성경에는 에덴동산에 아담과 해와가 살고 있었다고 하였다. 에덴동산은 분명히 천국이요 천국에는 하나님 이외에는 살 수 없는 고로 아담 해와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다. 천국에는 원체(元體)가 되는 하나님이 계시고 아담 해와는 용(用)으로서 아담 해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좌정한 즉 하나님이 온전히 주장하는 가운데 에덴동산 천국에 살고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과 아담 해와 세 분이 일체를 이루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천당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모습을 한 마귀가 나타나서 아담 해와의 마음속의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앉게 되자 아담 해와는 남자 여자라는 인간으로 변하고 말았다. 이것이 성경이 그리는 선악과 사건이다.

### 궁궁을을의 뜻

마귀와의 싸움에서 진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되찾기 위해 궁궁(弓弓)으로 박테선(朴泰善)이라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셨다. 궁(弓)은 활이다. 활의 목적은 적(敵)이 되는 마귀를 죽이는 것이다. 그러나 화살이 없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화살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그 화살에 해당하는 것이 을을(乙乙)이다. 그래서 궁궁의 하나님이 전도관을 세워 도를 전하는 것이다. 그 도는 유도 같으나 유도가 아니고 불도 같으나 불도가 아니요 선도 같으나 선도가 아니다. 유불선 삼도 합일의 도이다. 도를 전한다 함은 딱 바로 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아무한 테나 전하는 것이 아니다.

궁궁의 하나님(1, 火)은 일남일녀를 생산하여 세 분이 일체가 되어야 에덴동산을 회복할 수가 있다. 먼저 도를 받는 자가 해와에 해당되는 여인 한 분(4, 雨)이다. 그러나 여인이기 때문에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를 전해 받은 여인은 궁궁의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과 함께 마지막 주인공 을을(乙乙)을 키운다. 마지막 주인공 을을(乙乙)은 마침내 궁궁의 하나님과 여인 한 분과 일체를 이루어 궁궁을을(144, 火雨露)이 되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마귀를 죽여 버리니 삼위일체 하나님이 좌정하게 된다. 이는 자신 속의 마귀를 죽이고 마귀를



정도령은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세워 남북통일을 이루려고 하셨다

박멸소탕할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완성의 이긴자가 된 것이다.

계룡이라 할 때 계(鷄)는 궁궁이며 룡(龍)은 을을이다. 따라서 계룡은 궁궁을을이 되며 십승으로 정도령이 되는 것이다. 흔히 손진계룡(巽震鷄龍)을 말하는데 손(손)은 계(鷄)이며 진(진)은 룡(龍)이다. 손(손)은 계룡을 팔괘로 말할 때 사용하는 괘이다. 정도령이 계룡산에 도움을 정하여 지상천국을 건설한다고 격암유록에 나와 있는데 그 계룡산은 충청도 공주 계룡산이 아니라 나와 있다. 계룡산은 바로 정도령이다. 정도령이 지상에 신선의 나라를 건설한다는 뜻이며 신선은 불로불사의 존재이니 결국 죽음이 없는 세상을 만든다는 것이 된다. 죽음이 없다 함은 마귀가 박멸 소탕 되었다는 것이다. 정도령은 어떻게 마귀를 박멸소탕 하는가? 그 무기가 바로 감로해인이다. 정도령은 감로해인을 임의 용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정도령으로부터 감로해인을 받아야 나 자신 속의 마귀를 죽일 수 있는 것이다. 감로해인을 받으려면 정도령의 말씀대로 실천을 해야 될 것이다. 이론으로만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 강종산 이후에 오는 두 사람이 '궁궁과 을을'이며 '계(鷄)와 룡(龍)'이다.

이씨조선은 임신년부터 을사년까지 28대 군왕 574년이라고 격암유록은 말한다. 1392년~1965년이 574년이다. 순종임금이 27대이며 이씨조선의 기운이 남아있어서 이승만이 1948년~1960년까지 12년간

대통령으로 집권하였고 1960년 경자년에 419혁명으로 하와이로 망명후 1965년(을사년)에 서거한 바이로써 이씨 왕운은 끝났다. 이씨조선이 끝나면 다음은 정도령시대가 열리게 되어 있는데 1965년 을사년은 궁궁의 하나님과 여인 한 분은 나왔으나 마지막 주인공 을을은 아직 수도 중이라 바로 정도령 시대로 넘어갈 수가 없게 되어 다음 을사년을 기다리게 된다. 1980년 10월 15일 삼위일체 하나님이 마침내 을을을 좌정함으로써 궁궁을을(曹熊星)이 되니 무극대도를 완성하고 나라는 마귀를 죽여 승리하였다는 뜻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승리제단을 세워 1981년부터 천지공사를 펴게 된다.

격암유록은 윗날이를 말하면서 오묘일결(五卯一乞) 단동불출이라고 천지비밀을 숨겨놓았는데 또 다섯 번에 걸 한 번이면 녀동이 단동에 난다. 이를 육십갑자에 숨겨놓았으니 이리하다. 오묘는 을묘 정도령 기묘 신묘 계묘이며 일결은 갑진 을사 병오이다. 결은 양(羊)이며 구세주를 의미한다. 진사에 성인출, 오미에 낙당당이 걸려있다.

### 남북상화태평가(南北相和太平歌) 옥등추야삼팔일(玉燈秋夜三八日)

갑을의 해(을사 병술)에 정도령의 천지공사로 남북을 화합하게 하니 태평가를 부르리라.

서경(書經)에 '오동나무에 보름달이 걸리니 봉황이 날아와 춤을 추도다. 만백성의 눈과 귀가 열려 통하니 도덕치지 요순

세계로다. 세세로 이어받아 영원토록 이어가리.'라 한 것도 같은 의미이리라.

### 정초비조구월 오칠사년 천수선요 계룡태조 등위비상(鄭初飛鳥鳩月 五七四年 天受禪堯 鷄龍太祖登位飛上)

이씨조선이 574년(임신 을사)으로 끝나고 요임금이 하늘로부터 임금의 자리를 선위 받듯 정도령이 태조가 되어 보위에 오르리라. 이로서 정도령 시대가 시작되리라 (을사 병술)

### 우왓진인세계하저진 화양가춘야(又曰眞人世界何之年 和陽嘉春也)

진인의 세계는 언제 시작되는가? 남북이 서로 화합하고 하나님의 따뜻한 양도가 펼쳐지는 아름다운 봄이 올 때이니라. - 봄은 갑을을 말한다.

### 남북통합으로 정도령시대 열려

남북통합(을사년 병술월)은 진사성인출(辰巳聖人出)로 정도령시대가 열리며 이어서 바로 만국통합으로 들어감으로써 오미낙당(午未樂堂堂)이 되어 기뻐서 춤을 추게 되는 것을 그려 놓았다.

그러나 흥진비래(興盡悲來) 즉 흥이 다하면 슬픈 일이 온다고 하였으니 오미낙당 후 남지운 즉 좋지 않은 운이 들어온다고 한다. 피안으로 건너가는 구원선을 염으려고 오마가 발동하니 산 같은 풍랑파도가 일어나지만 도사공이 정도령이라 무사히 피안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변화의 극점을 향해가고 있는 지금,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는 자만이 생존할 것이다. 지난 이씨조선이 오백년 동안 밖의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고 공자 알 맹자 알 하다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마침내 일제의 손아귀에 떨어져 나라가 망하였다.

때는 바야흐로 활자문명시대를 지나 디지털 문명시대로 넘어왔다. 정도령의 불사영생의 대도를 알리는 방법도 활자문명시대에 하던 방법을 벗어나 디지털 문명시대에 걸맞은 방법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할 것이다. 불사영생의 진리를 전하라. 시시급급(時時急急) 전하라!!!

조만간 전 세계의 언론 통신사의 기자들이 대한민국으로 몰려오리라.\*

박명하 / 고서연구가  
myunghpark23@naver.com  
010 3912 5953

##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57>  
"상대방 속의 마귀도 함께 죽이는 법"

나라는 것이 원수 마귀라는 것을 알았다면, 나라의 것은 미물의 곤충만도 못한 존재인 것을 이제 알았다면 함부로 입을 놀려 말을 해서 안 되는 것이다.

오직 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아로 완성되기 위하여 애를 쓰고 기를 써야 하는 것이다. 자존심이 올라오면 죽도록 나를 짓이겨야 하는 것이다. 나라는 것이 올라올 때마다 짓이기고 죽어야

나라는 마귀가 완전히 죽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생활에서 부딪치는 가운데 나를 이겨야 되는 것이다. 나를 쳐서 굴복시키기만 하면 만민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이다. 나만 죽으면 상대방 속에 있는 마귀도 함께 죽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나를 죽이는 것이 급선무인 것이다.\*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58>  
"7수로 완성되는 역사"

성경에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이 나온다. 그러므로 6월이 6천 년을 말하는 것이요 6천 년이 지나 7천 년대에 가서야 안식일이 된다고 성경에는 뚜렷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다.

성경에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 일곱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였고 또

일곱째 천사가 마지막 천사라고 하였다. 또한 첫째 인(印), 둘째 인, 셋째인, ..., 일곱째 인이 마지막 인이라고 하였다.

하늘의 역사는 7수로써 완성이 되며 7수에 해당되는 7번째 천사가 나와야 완성이 되는 것이고 기간으로는 6천 년이 끝나고 7천 년대에 가서야 죽음이 없는 지상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 이기는 삶

### 필요 없는 것은 버리자

방이나 사무실, 책상, 캐비닛 등에 어지럽게 늘려있는 물건이나 서류를 정리해야 되겠다고 늘 생각은 하지만,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다 필요할 것 같아서" 라고 하며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영정 정리하지 못하고 방이나 책상 위에는 온갖 잡동사니들로 넘쳐난다.

### 시간 낭비를 줄이려면

이렇게 되면 물건 하나 찾기가 무척 힘이 든다. 도대체 어디에다가 두었는지 분명히 여기에다가 둔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거래처 손님이나 상사가 서류하나 찾아오라고 하면 온 책상과 캐비닛을 다 뒤진 후에야 서류를 찾아온다. 그나마 찾아오면 다행이다. 아무리 찾아도 없으면 정말 난감하다. 분명히 책상 위에 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그의 업무처리 능력은 신뢰성을 잃게 되고 인사고과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 환경을 단순화하라

주변 환경을 단순화하라. 업무 환경을 단순화하라. 방안에 잡다한 물건이 가득 차 있거나 사무실이나 책상 위에 잡다한 서류가 가득한 것은 그만큼 머릿속이 복잡하다는 것이다. 물건이나 서류를 정리하면 머릿속도 정리된다. 시냇물로 '얽잡 소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막연히 물건을 정리하다 보면 위치이동만 될 뿐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 그럴 때는 물건을 모두 밖으로 끄집어내라. 그리고 필요한 것만 갖다 놓아라. 그리고 소장할 것과 임시 보관할 것을 정리하고 나머지는 모두 버려라. 미련 없이 버려라. 아무리 고가품이라도 나오는 상관없는 물건이다. 처분하라.

컴퓨터 파일도 같은 방법으로 정리한다. 필요한 정보는 폴더를 만들어 분야별로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보관하라. 이제 물건이나 필요한 정보를 찾는다고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건이나 3

## 신간안내



## 정도령 아니면 절대로 풀 수 없는 신비한 예언서

### 격암유록신해설 개정합본

상·하권 개정 한 권으로 통합 출판

격암 남사교 선생,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도 예언!!  
감로해인의 주인공 정도령을 만나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 불확실!!!

전국 서점 절찬리 판매중 ...역학 예언 베스트셀러 신이 이끄는 자 이 책을 만나리라!!!